

“이동걸, 구조조정 회피… 자회사 늘려 방만경영” 질타

(산업은행 회장)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 국감

“합병관련 사건 아주 최소화해야
사건 말할거면 회장직 그만둬야”

이동걸 “사건 부작용 생겨 사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4일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합병론에 대해 “사건을 이야기해서 잡음이 일고 부작용이 생긴 건 공개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을 전제로 합병 이슈를 꺼내 들었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로부터 “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질타를 면치 못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의 설립에 대해서도 책임회피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측에서 당분간 검토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할 의사가 없다는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합병론을 철회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당시 “정책금융이 여러 기관에 분산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병 관련해서 회장은 사건임을 주장하는데 그 자리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사건은 아주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사건만 말할 거면 회장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합병론이 수은 행장 출신인 은 위원장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다”라며 “사건을 밝힌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건 뼈아프게 받아들이지만 확대 해석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와 관련해서도 책임회피 질타가 이어졌다. 산은은 그동안 사모펀드 형태로 보유하던 대우건설을 KDB인베스트먼트로 넘겼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은이 본연의 임무인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방만

조직을 만든 것”이라며 “산은 본연의 임무가 정책금융과 구조조정인데 자회사만 들어서 조직을 확장하고 스스로 할 일을 자회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책임 회피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구조조정하고 매각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산은이 출자·관리하는 금호아시아나, 나아가선 한국지엠(GM)까지도 전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우건설 매각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2년 정도를 거쳐 시기가 좋아지면 기업가치를 높여 판매하겠다”며 “대우건설이 한번 매각에 실패했을 때 잠재적 매수자를 다 접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매각을 단기적으로는 성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DB인베스트먼트 사장으로 산은 수석부행장 출신이 자리를 옮기는 등 인력과 자금 측면에서 사실상 산은과

한 몸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 회장은 “대부분의 실무인력은 시장에서 채용한 전문가”라며 “임금체계 때문에 시장 전문가를 (산은이) 직접 채용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GM의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면 미국 GM 본사가 다른 나라로 물량을 뺄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이 나온다는 질의에 “트랙스 등 협의 외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GM이 어떤 결정을 하든 제동을 걸 수 없다”면서도 “노사간 협의를 통해 그 물량이 한국에서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고 회사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한국GM 노조가 2개월 가까이 부분 또는 전면파업을 벌이는 등 사측과 갈등하는 것을 두고 “노조가 긴 미래를 보고 노사 협의에 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 허용”

(경제부총리)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

“산업 현장규제 대폭 완화할 것”

정부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규제완화 카드도 꺼내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총 44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며 “증권사 해외계열사에 관한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발전 및 신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 현장규제를 대폭

완화 하겠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심사절차 간소화, 산단 입주기업 협력사의 산단 내 공공시설 임대 허용 등을 언급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동안전보고서, 장외영향평가서, 위생관리계획서 등 다수 자료를 내야한다. 이에 대한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심사 절차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허용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등의 부대 시설 정도로 수소충전소를 제한하고 있다. /송태화 수습기자 alvin@

은성수 “조선업, 주력산업 되도록 적극지원”

(금융위원장)

부산·경남 조선기자재업체 간담회

“현장 체감효과 중심 지원 할 것
국제 환경규제 강화 등 대응해야”

“조선업이 경쟁력을 갖춰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부산·경남지역 조선기자재업체 현장간담회를 열고 기존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부산에 위치한 조선기자재 업체 파나시아에 방문했다. 파나시아는 선박 및 산업설비 관련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로 지난 6월 전 최종구 위원장이 방문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앞으로 금융지원의 프로그램은 서류상 지원 실적 아닌 현장의 체감효과를 중심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주요기업의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고 조선업황이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수주는 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부산 친환경설비 조선기자재업체 (주)파나시아를 방문해 부산·경남지역 조선기자재 업체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계 발주량 증가속에 지난 2017년 이후 회복세로 전환했다. 2016년 22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이던 수주량은 2018년 1312만CGT로 상승했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수주량은 527만CGT로 수주량으로는 세계 2위, 수주금액(127억불)으로는 세계 1위 수준이다. 조선사업 종사자 수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 7월 13만8000명에서 8월 14만명으로

연속 증가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우리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충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품질 등 우리 기업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며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조선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으로 굳건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조선기자재업체 등에 대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적극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수은과 신보를 통해 20조 5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하고, 업무협약 투자금융협의체를 통한 해외기업 인수금융 등을 지원한다.

은 위원장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정책 금융기관 업계의 합심이 중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금융을 지원해 줄것을 당부하고 업계에는 기술개발·생산성 제고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

“게임 불확실성 아닌 사업 다각화”

>> 1면 ‘코웨이 인수, 방준혁…’서 계속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그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에 나서왔다. 실제 넷마블은 카밤, 빅히트 등에 약 2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 2015년 넷마블과 엔씨소프트의 상호 지분 투자로 ‘리니즈2 레볼루션’을 탄생시켜 흥행작을 배출했으며 카밤, 잼시티 등 해외 게임사들을 인수했다. 게임 사업뿐 아니라 비게임 사업에 대한 투자도 단행했다. 지난해 4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

식 25.71%를 2014억원에 인수한 게 대표적이다. 올해 초에는 국내 게임 1위 업체인 넥슨이 매물로 나오자 적극적으로 인수전에 뛰어들기도 했다.

넷마블은 게임 산업의 매력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지만 향후 다른 비게임 사업에 대한 M&A 가능성은 열려있다. 넷마블 권영식 대표는 “이번 투자는 게임사업 한계나 성장 불확실성이 아니라 자체적인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게임 쪽 사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민 기자 silkni@

고용보험 가입자 수 7개월째 50만명대 ↑

고용부 ‘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서비스업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크게 늘면서 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만 9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지난 3월 52만6000명 증가한 데 이어 7개월 연속 50만명 이상씩 증가해

왔다.

특히 50만명이 증가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한 서비스업은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폭을 이어갔다.

주로 ‘도소매’(5만1000명), ‘전문과학기술’(4만9000명), ‘공공행정’(4만4000명) 등에서 증가폭이 컸고, ‘사업서비스’(2000명)도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제조업은 ‘자동차’와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7000명 줄면서 올해 첫 감소세를 보였다.

‘자동차’는 업계의 일부 실적 부진에

더해 지난 1월부터 일부 사업장이 제조업에서 전문과학기술로 분류돼 7000명 감소했다.

또 반도체 설비투자 위축으로 ‘기계장비’에서 4천명이, 중국발 LCD 저가 공세로 디스플레이 업계의 구조조정, 휴대폰 생산라인의 해외이전 등으로 ‘전자통신’에서 2000명이 줄었다.

다만 ‘기타운송장비’는 2017년 하반기부터 국내 조선업이 회복되기 시작해 올해 들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6000명 증가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반도체’(3000명), ‘식품료’(9000명), ‘화학제품’(4000명) 등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손현경 기자 son89@